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어리석은 무신론자

(시편 14:1-7)

시편 14편은 시편 전체에서 거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53편은 5, 6절만 변형된 14편의 복사판입니다. 이렇게 시편 14편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인용되고 있는데 로마서 3:10-12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1.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도다”(1절)

여기서 ‘없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No God for me.’,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내 하나님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고 알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지 안계신지 알지 못하고 말했다면 그는 회의론자 또는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분명히 죄를 범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알면서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우리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저절로 조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인간은 핑계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롬 1:18)로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인간에게는 불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대 높은 데에 구리뱀을 매달아 백성들이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았지만 백성들은 쳐다보지 않았습다.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음입니다. 불의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1절).

인간은 아담 이후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장로교를 창설한 요한 칼빈의 5대 강령 중 하나가 완전 부패(total depravity)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의 요소가 조금도 없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벨’이라고 읽습니다. ‘나벨’은 ‘나발’이라고도 읽습니다. ‘나발’은 후일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남편으로 사람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죽을죄를 지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내에 의해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삼상 25:25). 나발은 여호와께서 갑자기 치시매 죽었습니다(삼상 25:38).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는 부패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리석은 것은 무학무지한 것이 아니고 지식의 착오와 사고의 오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역사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생명의 섭리자임에도 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야 합니다. 무신론자도 반드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없는 줄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실재를 확인할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심판 주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 할 것입니다.

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2.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에 관해 말씀하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2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창 11:5). 홍수 심판 이전에도 악한 백성들을 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창 6:5). 하나님의 심판에는 인간의 타락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3절).

성령님의 조명 없이 인간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해도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눈뜬 소경과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른 채 제멋대로 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 어리석은 자의 길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에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무신론 사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은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흑시 땅에 지각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두루 살펴보시지만 인간은 하나같이 추악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자이며 멸망에 처한 자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직 여호와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6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회중에 임하시고 그들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야 합니다. 무신론자도 반드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없는 줄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실재를 확인할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심판 주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참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대안학교 · 방과 후 교실 및 전문대학 설립한다

11월27일 찬양예배 시간에 선포식 가져

우리나라의 정신지체 · 발달장애인들은 전 생애에 걸쳐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하는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그들에 대한 교육의 현실은 입시위주의 학급에 아무런 지원 없이 하루 종일 방치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던 우리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들이 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장애인을 위한 대안학교와 방과 후 교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최초의 장애인 전문대학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를 책임지를 분으로 이동귀 선생을 청빙한다. 이 분은 앞으로 우리교회가 펼치게 될 복지사업 중 장애인 부분을 전담하게 된다. 간략한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앞으로 한 달여간 기초준비 작업을 하고 11월27일 찬양예배 시간에 교회설립 14주년, 헌당식, 필사성경봉헌식, 선교사 파송식과 함께 장애인 전문대학, 대안학교, 방과 후 교실 창설 선포식을 하게 된다.

별도 건물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교회 6층과 7층을 사용케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선포식 후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교명(校名)을 공모한다. 좋은 생각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이동귀 선생 약력

- 이화여대 학사(독문과), 석사 (특수교육학과)
- 보스톤 대학교 박사 (특수교육학과)
- 조기교육원 원장 및 복지관 관장 역임
-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 서울장신대, 동덕여대, 서강대대학원 강사
- KBS 강태원 복지재단 이사
- 강남구 보육발전위원회

<과적별 실시내용>

대안학교

- 운영시작: 2006년 1월
- 대상: 정신지체 발달장애 중고등학생
- 인원: 10명
- 수업시간: 1월-12월
월-금: 오전 9시-오후3시
토: 오전 9시 - 12시
- 인력구성: 담임교사 1명, 각 과목별 담당교사 및 전문강사

방과후 교실

- 운영시작: 2006년 1월
- 대상: 정신지체 발달장애 중고등학생
- 인원: 35명
- 수업시간: 1월-12월
화-금: 오후 3시-오후 6시
토: 오전 9시 - 12시
- 인력구성: 담임교사 3명, 각 과목별 담당교사 및 전문강사

전문대

- 운영시작: 2006년 1월(3년 과정)
- 대상: 고졸이상의 성인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 인원: 25명
- 수업시간: 1월-12월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 인력구성: 담임교사 2명, 각 과목별 담당교사 및 전문강사

2005 성경암송대회 은혜 중에 마쳐

지난 10월28일 금요일 오후 7시 602호실에서 2005 성경암송대회 본선이 열렸다.

이날 23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전장을 암송하여 다음과 같이 입상하였다. 이들 입상자들의 시상식과 발표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교육1국>

대상: 박연경 금상: 이 광
은상: 이 인 동상: 김동재

<교육2-5국>

대상: 김소연 금상: 김진달
은상: 김대웅 동상: 최용걸

<영여성경암송>

대상: 석은빈 금상: 한세희 은상: 노재균

태신자 명단

사명자 대회 기간에 태신자를 위한 기도와 전도가 계속된다. 이들이 구원을 받도록 함께 기도를 드리자.

임한성 김계심 황의찬 이연옥 김수동 김 진 유진하
장현호 손청자 김윤희 정의대 김혜숙 정주원 정혜경
이준우 이상철 이상현 권기원 진은영 권우성 권아영
김철호 이진기 홍동기 조은행 강봉래 장동숙 오창근
홍승표 안병준 오병두 박천군 정요순 박준혜 이하승
김정호 한영옥 김미희 신장심 강명모 김지수 최윤섭
강길순 이영미 김원형 신은경 김택희 심영옥 박영자
김종만 윤봉한 임은순 황진순 조영남 마순자 채 황
이희원 서신석 백중열 박미선 이점주 안지원 이지현
최윤희 구예솔어머니 김문기 유순덕 나할림 정진숙
나스민 나홍삼 문철배 박석환 송소연 배상일 고기태
서정복 고담비 고병문 오희교 조점문 최진철 김희경
최진삼 최창인 홍승무 이정아 홍지영 홍남영 이상호
홍선희곽지연 김상주 신상희 현미자 서용옥 최지환
송민지엄마 홍동영 윤은영 (다음주 계속)

한당감사 14대 행사-연합찬양제 참가교회 찬양대 소개

서울교회 임마누엘찬양대

이번 주는 초청찬양제를 주관 하는 우리 교회 임마누엘 찬양대를 소개한다.

임마누엘 찬양대는 교회 창립 과 더불어 창단 되어 지금까지 3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12월 대치동 성전에 입당하면서 1부 예배는 가족예배로, 3부 예배는 대학청년부 예배로 그 모습이 바뀌었고 이에 임마누엘 찬양대의 구성원도 점점 대청부 회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현재 90여명의 대원이 봉사하고 있으며 새해에는 더욱 온전한 모습의 대청부 찬양대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한다.

임마누엘 찬양대를 지휘하는 고성진 집사님은 한양대와 동대학원 성악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에서 교회음악을 수학하였으며 이태리 피렌

체 시립아카데미를 졸업했다. 현재 한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김자경오페라단 단장으로 오페라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 한일수교 40주년 기념 서울시립오페라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가졌던 심청전에서 심봉사 역을 맡았던 고성진 집사님은 특유의 음색으로 많은 이들의 갈채를 받은바 있으며 넓은 음역과 특이한 음색으로 바리톤의 1인자라는 음악계의 평판을 받고 있다.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고성진 집사님은 목회를 하시는 부친의 영향으로 유년 시절부터 자연스레 교회음악을 접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와 교회음악은 자신의 삶에 큰 비중으로 다가온다며 교회는 항상 그의 삶에 최우선 순위라고 한다.

대장 신윤식 장로님은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번 초청찬양제를 주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운 서울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헌당을 하는데 있어 임마누엘 찬양대가 특별히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된 일에 모든 찬양대원이 기뻐하고 있다. 이번 초청찬양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더불어 우리교회의 찬양대에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참가곡은 '열렸다 하늘문이', '영광 할렐루야'이며 '열렸다 하늘문이'는 입당예배 때 우리교회 연합찬양대가 연주했던 것으로 이종윤 목사님이 시를 쓰시고 박정선 장로님께서 곡을 붙인 찬양이다.

오는 11월 13일(주일)에 열리는 한당 감사 초청찬양제에 성도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과 뜨거운 기도 바랍니다. 허숙(편집부)

종교개혁주일 특별 기고

개혁의 정신을 되돌아본다

이성득 목사(7, 8 교구 지도)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논제]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 교회 정문에 게시 하면서 시작되었다. 올해로 종교개혁 주일은 4백88주년을 맞게 된다.

1512년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신학 교수직을 담당하면서 루터는 자신이 그토록 고민 하던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관해 깊은 성찰 가운데 구원은 명상이나 고행, 성례전, 순례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면죄부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원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신득의의 원리를 깨달은 것이다.

1517년이 되자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생각하며 건축자금을 마련을 목적으로 면죄부를 팔았다. 신앙적인 이유에서 도저히 면죄부 판매를 찬성할 수 없었던 루터는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반대한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내걸었다. 개혁교회의 태동은 어언 488주년으로 접어들었다. 루터는 당시의 로마카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95개조 조항의 문



톨릭의 부패와 안일과 구습에 대하여 개혁의 가치를 올린 것이다.

교회는 끊임없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교회를 넘어 교단과 나아가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새로워지며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안일과 타성에 편승하여 부패를 자초한다. 개혁(Reform) 할 때만이 변화 가운데 발전과 진리의 진정성을 간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지난 대한예수교 장로회 88회 총회 시 주기도 사도신경 재번역의 건이 상정되어졌을 때 총회의 책임 있는 분들과 일부 총대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수 몇 사람의 타성적이고 감정적인 발언과 변화를 거부하는 듯한 자세는 장로교 나아가 개혁교단의 일원으로 전혀 상반되는 태도인 것이다.

바라기는 종교개혁 488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생각하고 교회일치를 바라는 절대 다수의 성도들의 바람인 주기도문 사도신경재번역의 건이 빨리 통과 되어 자라나는 세대들도 이해하기 쉽고 원문 상에도 바르게 번역이 된 주기도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본다.

사망자대회 150일 연속기도
-태신자를 위하여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은순 집사(10교구, 70인 전도대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태신자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큰 사랑을 저들이 알고, 믿게 하시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 그리고 가련한 못 심령들을 기억하사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안식을 주옵소서.
공부에 지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우선하게 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들을 온전히 구원하시어 천국 백성 삼으시고 저들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므로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저들을 깨우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못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만민에게 전도

사랑하는 남편이 세례를 받았어요!

박미숙 집사(13교구)

풍성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며 또 그 세밀한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남편의 세례식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일은 정말 오랫동안 아내로서 기도하고 소원을 품은 일이었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서울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과 성도들의 사랑이 한 생명을 변화시켰습니다.

결혼하여 13년 동안 짝 믿음인 저는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남편이 나를 따라 교회에 나오지 하는 교만한 믿음을 가지어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교회에 다니겠다고 한 약속을 되새기며 그가 교회에 출석하기를 다시금 소원했습니다. 남편은 세상 일이 우선이 되었으며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신조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부족함을 알게 해주신 주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마음은 오직 남편이 예수를 믿어 영혼이 구원 받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구속 받고 율매인 것이 싫다면서 예배만 드리고 혼자 집으로 가는 모습을 주님은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새가족부에 같이 수료식을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기도했기에 세밀하신 주님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어 부부 함께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처음 믿는 이의 새싹 같은 연약한 믿음을 교사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잘 배양하여 뿌리 깊은 나무되어 열매 맺기까지 인도해 주신 새가족부의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부부 함께 필그림 산악회에 들어가 토요일 등산하며 마음을 열고 믿음 속에서 교제 나누고 은유함과 평화로운 모습으로 2년 동안 마음을 열며 꾸준히 성수주일을 잘 하게 된 것도 남편을 준비된 영혼으로 만들어서 구원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리문답부에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함께 다지며 땅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2005 사명자 24시간 연속기도표 (10.30~11.5)

기도지원자는 1층 현황판에 이름을 적으십시오.

일시	0-1	1-2	2-3	3-4	4-5	5-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10/30	주일	주일예배																						
31	월	김대호 이명순	전기섭 최규초	임옥균 최규초	임옥균 최규초	임옥균 최규초	홍순복 김영조	이안순 신선주	진인화 배은희	손상실 김정운	김복순 김영순	이영희 조영녀	김인수 인영애	양순임 최정숙	석은정 이상훈	신정순 이영훈	신정순 김영현	이영자 제오복	이영자 제오복	이선우 진돈	노경신 김영희	이봉규 서경애	이봉규	
1	화	이명순	윤봉준	윤운식 김규태	윤운식 김규태	윤운식 김규태	조철기 최양애	박우익 유영석	김찬진 홍광숙	손상실 전광환	전광환 진선자	노숙자 신종숙	박은주 서경애	박정임 장정화	민영순 이민화	왕경래 김경희	송재태 이영희	최성욱 전희진	주경자 전영택	문영순 윤복순	정창빈 정진수	김상태	이재봉 박찬성	
2	수	성준경 이명순	박장선	유기찬 한종우	유기찬 한종우	유기찬 한종우	최양봉 이경희	박우익 이경희	이남득 박정숙	한영	수 요 1 부	박정순 정애신	김인수 김종자	박정임 신현이	김찬진 김숙자	고후덕 유병옥	장낙희 최소희	한영순 최소희	수 요 2 부	이택영 이병연	김유선 최영인	김재진 김동진	양오경 박춘자	
3	목	김영준 이명순	박두영 정호자	우상태 김성준	우상태 김성준	우상태 김성준	배옥선 김진희	이동원 오복연	김찬진 김수옥	김찬진 김수옥	김정희 김수옥	김인수 김영희	박정임 최연아	김희진 최성영	성수영	신선주	김정희 김수옥	김수옥 김정희	한선연	윤유미 박복순	윤유미 이태연	이종창 석상화		
4	금	임상현 이명순	임상현 정호자	이광열 김훈	이광열 김훈	이광열 김훈	정은순 전인숙	양미숙 김은순	김현주 강영신	김현주 강영신	박경자 박두선	김영희 백대현	박정임 유와숙	양일수 이강원	정선호 권오준	박순단 정미경	김예란 김진숙	최영란 신영순	한선연	김요기	조영자 김영숙	윤영구 유기장		
5	토	김세재 이명순	김상철	유근종 김복승	유근종 김복승	유근종 김복승	이미연 노영자	이미연 이규희	정원조 김순자	김순자 이기권	안분선	안분선	박연순	김규정 정연숙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천국시민양성

찬양대양성반을 수료하며...



왕경래 장로(11교구)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의 찬양 할 지어다 (시150:6)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중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 목소리를 통한 입술로서 노래하였으나 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정리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새 노래로서 올바른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소문난 서울 음대(?) 찬양학과에 입학하였다.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재미있고 보람된 시간이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음악에 대한 기초이론과 호흡과 발성법을 통하여 음맹과 음치에서 벗어나는 감동을 받았다.

복식호흡을 함으로서 가슴이 퍼지고 자세가 바르게 되었고 웰빙 건강법도 곁들여 배웠다. 악보 보는 법을 배우으로써 음정과 박자를 맞출 수 있게 되었고, 지휘자 보는 법 시간은 지휘자가 되는 기분이

있으며 합창할 때는 소리가 튀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물을 통하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찬양대 양성반을 공부하면서 찬양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신앙이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온몸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성을 다하여 모든 순서를 이끌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서울교회 전 성도들이 찬양대양성반에 입학할 것을 권장 드리며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동정

- **득남:** 하원일 성도 구윤희 성도가정 (12교구)
- **주간식당봉사:** 바울 선교회(10월30일)
엘리아선교회(11월6일)
- **금주의 식사:** 전경희 성도, 이일영 집사 이선아 집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연합찬양대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503호에서-

오는 11월 25일(금) 저녁 7시에 열릴 연합찬양대 찬양 Festival을 위한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교회 모든 찬양대원들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칸타타를 불러 현당의 기쁨과 감사를 모든 성도와 함께 드린다.

또한 11월 13일(주일) 찬양예배 시 초청된 세교회 찬양대와 우리교회 임마누엘 찬양대가 참여기 위해 역시 매주 토요일 5시 501호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대학·청년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비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경지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10월9일부터 50일간) 기간동안 5대 기도제목 성취되도록
2.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체 하소서
3. 11월27일 헌당식, 암송필사성경봉헌, 선교사 파송, 장애인 전문대학·대안학교 설립이 은혜롭게 되도록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과 북한 땅의 신앙 자유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교회외시는 길

